

# 11월의 안테나

盧永翰  
(본지 편집국장)

## 창간 14주년에

이번 호로 「월간양계」 창간 14주년을 맞는다.  
 창간 당시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당시 발행인 오봉국, 편집위원장 한인규) 탄생한지 14주년이 된 것이다.  
 그간 「월간양계」가 우리나라 양계산업에 미친

공과를 말하기에 앞서 오늘의 현실이 그 어느때보다 전문잡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월간양계의 앞으로의 사명에 더욱 무거움을 느낀다. 오늘의 우리 현실이 전문지식과 고급문화의 대중화를 위해서 잡지문화의 활성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정보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전문적이고 고도로 정밀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잡지를 편집하는 입장에서 전문화된 독자층을 상대로 제작할 경우 독자층이 좁아지고 대중적으로 제작할 경우 읽히지 않는 잡지가 되고 마는 고충이 따른다.

잡지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간지 1,533종중 68.4%에 해당하는 1,049종이 무가지이며 유가지중에서도 상당수가 무가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중간전문인의 폭이



넓지 못하여 얼마나 월간지 경영이 어려운가를 말해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성인의 90%가 잡지를 구독하고 1인 평균 8권의 잡지를 읽고 있으며, 이중 70%가 정기구독이라고 한다. 또 잡지의 광고, 종류, 판매부수도 계속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사회에서 양제인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급하고 양제인에게 마음의 양식을 공급하는 잡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편집인 자신부터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더우기 「월간양계」는 양제인의 대변지로서 양제인의 권익보호라는 또 하나의 큰 사명이 있다. 「월간양계」는 양제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편집위원들이 전문분야별로 많은 참

여를 하였고, 회원들의 성원과 광고 등 여러 형태로 지원하여 준 업계의 도움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산업구조가 개편되는 시기에는 더욱 폭넓은 전문가들과 양제인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월간양계의 제2도약을 위해서 배전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협회의 실무직원들도 본문은 물론 광고 하나에까지도 모든 양제인에게 폭넓게 파고 드는 잡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시한번 각오를 새롭게 한다.

잡지 전문학자인 한양대 오진환(吳鎭煥)교수는 「과거에는 사상계(思想界)와 같이 한 세대를 이어 오며 그 시대의 정신적 지주노릇을 한 잡지가 있었다. 이는 잡지에 편집자의 주관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한 말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한다.

## 사료값 인상과 생산물가격 하락

도입옥수수 가격이 톤당 145\$에 공급되어 오던 것을 10월 1일 이후 도착 모선분부터 안정 기준가격을 160\$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본지 9월호 및 10월호 p.54 참조) 11월부터 배합사료 가격이 약 12% 정도 인상되게 되었다.

옥수수 대두박에 대한 실질판색율이 상승되어 내년초에는 다시 8~10%인상요인이 있어 당초 예상한대로 20% 정도의 배합사료가격의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

반대로 생산물가격은 대란이 11월 1일 기준으로 43~44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브로일러는 한때 400원선까지로 무너져 심각한 국면에까지

이르렀으며 11월 1일 현재 700원선으로 실질 거래되고 있는데 돼지고기 가격마저 하락세에 있어 장기화될 전망으로 보인다.

제란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면 불가 안정을 위해 물가당국에서 수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에는 수입쇠고기 가격이 버티고 있는데다 금년 2월 부터 시행된 도계유통으로의 유통구조개혁에 따른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의 양계산업은 선진국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부문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되었으며, 산업구조의 재정비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GP 센터의 설치나 도계유통이나 브로일러산업의 계열화를 추진함에도 이 자체가 목적이기 보다는 양계산업발전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며 이에대한 처리기준, 규격, 계약조건 등에 대한 연구와 문제점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